



협 회 소 식

2017년(2)



사단법인 우리민족교류협회
KOREAN INFORMATIONAL ASSOCIATION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19 기독교회관 311호
TEL:(02)3676-2007 FAX:(02)3672-1907
www.korinf.com



**[사단법인 우리민족교류협회는
분단을 넘어 대륙으로
한민족의 역량을 펼쳐갑니다.]**



사단법인 우리민족교류협회
Korean Informational Association
서울시 중로구 대원로 19 (한국기록교원관 311호)
Tel:(02)3676-2007 Fax:(02)3672-1907
www.korinf.com

통일을 준비하는 국민소통 문화축제
대한민국평화통일국민문화제
The National Cultural Festival for peaceful reunification of Korea



대한민국평화통일국민문화제조직위원회
Tel:(02) 3676-2007 | FAX:(02)3672-1907 | www.korinf.com

참전 21개국 평화의 종 건설사업 | 평화의 종 타종식 | 세계평화의 여왕 신발대회 | 통일로가는길 발령
PEACE KOREA 포럼 | 한반도 평화공헌 대상 시상식 | 통일문예공연전 | 독도아리랑 축제
한반도평화메달 보급 | DMZ 국민보은메달 보급 | 국제청소년 백두산 평화캠프

본 협회는“2017대한민국평화통일국민문화제”주력사업으로 애기봉 전망대 <남북평화의 종 건립>과, 유럽한인총연합회와 공동으로 추진할 예정인 종교개혁 500주년 특별기획 <독일 라이프치히 성니콜라이교회 남북평화기도회>와 <2007베를린국제평화대회> 등으로 확정하고, 협회의 모든 사업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더불어 본 협회는 금번 베를린국제평화대회가 유럽지역 한인사회가 중심이 된 한반도 평화 통일운동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어 질 수 있도록, 유럽지역 참전용사들에 대한 보은행사와 더불어, 오늘의 경제대국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그 발판역할을 하였던 과묵 근로자들(광부/간호사)에 대한 국민보은행사를 겸하여 진행하고자 한다.

또한 본 협회는 향후 체계적이면서도 지속적으로 협회활동을 활성화 해 가고자 본 협회가 직접 주관하는 행사에 한하여 관련메달을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재능기부를 받아 “DMZ보은메달”과 “한반도평화메달”, 그리고 “과묵근로자국민보은메달” 등을 새롭게 기획 제작함과 동시에 협회활동의 상징 “뺏지와 타이즈링” 등을 제작하였다.

따라서 본 협회는 메달수여자 선정을 위한 관련규정을 제정하고, 향후 이를 기준으로 협회활동을 적극 활성화 해 나아감과 동시에 재외 한인회들과 연계한 국제적인 한반도 평화통일운동에 적극 힘쓰고자 한다.

애기봉 전망대 남북평화의 종 착공식 2017애기봉국제평화음악회 추진

국/민/대/화/합/과/ 사회/통/합/을/ 위/해/ 민(民)/관(官)/군(軍)/이/ 함/께/하/는/ 국/민/문/화/제



6.25전쟁 67주년 보훈의 달 특집방송

2017 애기봉국제평화음악회

- 아, 대한민국! 세계평화를 만든다. -



1부: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조성 및
남북평화의 종 건립 착공식

2부: 2017애기봉국제평화음악회

기 획 안

지난 2015년으로, 분단독일은 평화통일 25주년을 맞았고, 동일한 분단국가 대한민국은 지구촌 유일한 분단국가로 남아 민족분단70년을 맞아,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범국민적인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거둬드는 북한의 핵실험과 무력시위 등의 도발행위, 그리고 날로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일본의 역사왜곡 등으로 대다수 국민들은 70년이 되도록 완성되지 못한 광복과 끝나지 않은 정전상태에서 불안전하게 유지되고 있는 한반도 평화에 대해 깊은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스스로가 만들어가야 하는 민족적 과제이기에 우리는 이러한 위기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들어 가야 한다.

따라서 날로 급변해가고 있는 국내외적인 정세 하에서 한치 앞을 가늠하기 어려운 한반도 주변의 국제정세와 지난 탄핵정국과 더불어 진행된 대선 등으로 인해 처절하리라 만치 극심하게 분열된 사회 열기를, 지혜롭게 극복하여 긍정적인 에너지로 승화시키므로 전화위복의 발판을 만들어 가고자 민관군이 하나되어 모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국민대화합과 사회통합을 기원하는 범 국민적인 축제로써 <2017애기봉국제평화음악회>를 6.25전쟁 67주년 보훈의 달 특집방송으로 진행함으로써 통일한국에 대한 국민들의 적인 꿈과 희망을 확산시켜 가고자 한다.

애기봉 평화공원 건립 계획도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조성사업

공사기간 | 2016. 11 ~ 2018. 12 면적 | 49,500 m²

발주 | 김포시 설계 | 履露齋 IROJE architects & plann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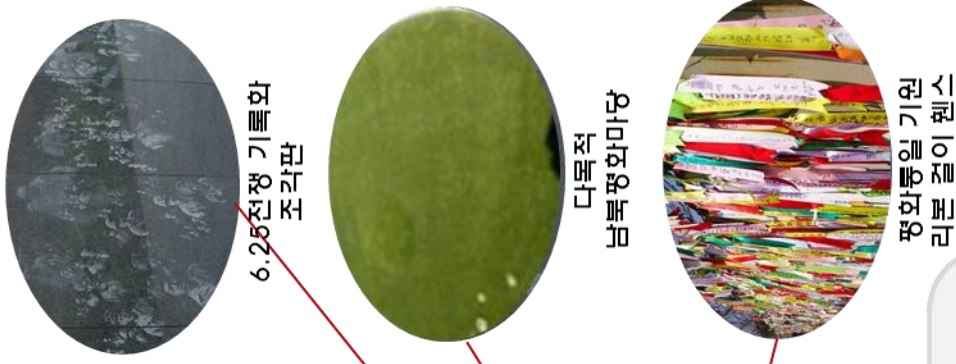


- 1. 전망대 2. 기념마당 3. 전망대 오름길 4. 평화의종
- 5. 주차장 6. 전시관 7. 평화광장 8. 해병대전적비(기존)

애기봉 남북평화의 종 건립 계획도



애기봉 남북평화의 종 조형물 개요(안)



6.25전쟁 기록화 조각판

다목적 남북평화마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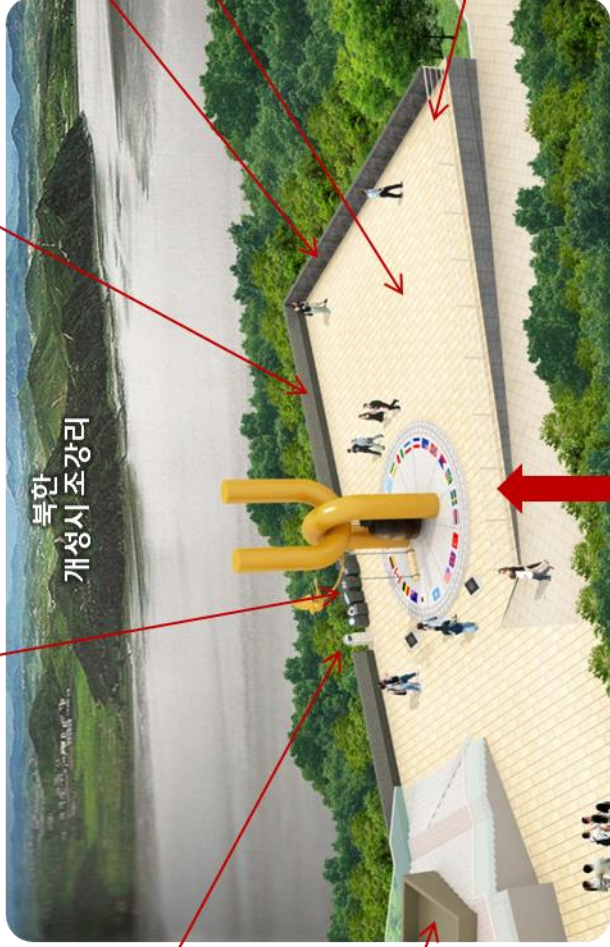
평화종일기원 리본절이벤트



참여자 기념명판



협천기념 로고탑



평화공헌비



애기봉 전망대





에스-오일이
멸종위기에 처한
천연기름을 보호에
앞장합니다

국민일보



이탈리안 모던 클래식
'반하트 디 알바자'
2013 국가품질경영대회
[명품 창출 부문 대통령상 수상]

국민일보 2016년 4월 28일 목요일

기획

33

애기봉 전망대에 '남북평화의 종' 세운다

사업의 의미와 성공 방안 모색 위한 좌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마음을 담은 '남북평화의 종'이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애기봉 전망대에 들어선다. 종은 2014년 철거된 애기봉 철탑의 쇠와 중부전선 비무장지대(DMZ)의 녹슨 철조망, 6·25전쟁 전사자 발굴 현장에서 수집된 남은 탄피로 제작된다. 71년 세월이 뒤 연발마다 성탄트리 변신, 개성 시내까지 성탄의 기쁨을 전하는 상징이었던 애기봉 철탑이 철거된 뒤 비어있던 곳을 평화의 종소리로 채우는 것이다.

대한민국평화통일국민문화제 조직위원회(조직위)가 주관하는 '6·25 한국전쟁 참전 21개국 세계평화의 종 건립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조직위 상임추진위원장 소강석 새이념교회 목사, 조직위원장 김영진 전 농림부장관, 집행위원장 송기학 우리민족교류협회(민교협) 이사장이 지난 24일 경기도 용인 새에너جو와 당회장에서 좌담을 가졌다.

“평화통일 염원 종소리 북녘 땅과 세계로 울려 퍼지게 할 것”

-분단의 상징인 DMZ 철조망과 탄피 등을 녹여 평화의 종을 세우는 사업에 국내외의 관심이 높다. 시작한 동기가 궁금하다.

▲송기학 이사장=2013년, 한국전쟁 정전 60주년을 맞아 민교협이 국민일보와 함께 참전국을 찾아가는 보은행사를 진행했다. 당시 국방부의 협조와 포스코의 지원으로 참전용사들이 흘린 피땀의 결정체인 DMZ 철조망과 한국전쟁 때 사용했던 탄피를 녹여 'DMZ국민보은메달'을 제작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미국 정부가 진행한 한국전쟁 정전 60주년 공식 기념행사에서 이 메달이 참전용사들에게 전달됐고 이들이 감동의 울음바다를 이루는 모습이 미국 전역에 전해졌다.

이때 경기도 파주시 실마리에 있는 영국군 전적비를 디자인했던 영국인 디자이너 나 아놀드 슈왈츠만 경이 생애 마지막으로 평화를 상징하는 작품을 한반도에 두고 싶다고 전해왔다. 그해 12월 한국교회를 중심으로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 '한국평화의 종'을 세웠다. 처음에는 슈왈츠만 경의 제안에 따라 경기도 파주 공동경비구역(JSA)에 세우려 했으나 집지 않았고, 국방부는 물론 유엔사령부, 정전협상국 당사자들의 동의를 얻는 절차를 거친 뒤 비로소 지난해 JSA에서 '세계평화의 종' 착공식을 할 수 있었다.

-세 번째 평화의 종은 김포 애기봉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소강석 목사=북녘 땅에도 성탄의 소망을 전하기 위해 애기봉에 세운 십자가 점등탑이 2014년 10월 안전문제로 전격 철거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했다. 철거된 철탑에 담겨 있던 한국교회의 평화통일 의지를 담아 '남북평화의 종'을 건립하면, 그 종소리가 북녘 땅 깊숙이 개성까지 들린다고 한다. 평화의 종 건립이 유엔 타종행사 등 다양한 행사를 하면서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국내외의 공감대를 확산시켜 '기다리는 통일'이 아니라 우리들 스스로 '일구어 가는 통일'을 준비하고자 한다.

-평화의 종 디자인이 독특하다. UN의 모양을 본뵈고 하는데 그 의미와 가치에 대해 설명해 달라.

▲김영진 전 장관=독일 통일 현장을 가보니 분단 당시 세워졌던 시설물들이 별로 없다고 하더라. 그래서 분단을 상징하는 철조망과 탄피를 이용해 만든 조형물을 세우면 그 자체로 소중함의 의미와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평화의 종은 UN의 이름으로 한국전에 참전해 피 흘린 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을 영구히 기리고 한반도 평화통일은 남북한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상호 협력하고 연합해야 가능하



송기학 우리민족교류협회 이사장, 김영진 전 농림부장관, 남경필 경기도지사, 소강석 새이념교회 목사(왼쪽부터)가 지난 24일 경기도 용인시 새에너جو 당회 회관에서 좌담회를 가진 뒤 '남북 평화의 종' 모형을 들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애기봉 철탑 쇠-DMZ 철조망-6·25 전사자 발굴 현장에서 수집된 탄피 녹여 제작

남경필 경기도지사

남북관계 출구 안보이는 상황에서 교계 평화의 종 건립사업 시의적절 평화통일 새책 울트는 계기될 것

김영진 전 농림부장관

종 모양, 'UN' 문자 체인 모양 형상화 DMZ평화기도회·평화의 종 타종행사 연중 진행해 범국민운동으로 확산

소강석 새이념교회 목사

우리 스스로 '일구어 가는 통일' 준비 한국 교계 평화통일운동 상징될 것 평화의 종 유엔본부 등에도 건립 계획

송기학 우리민족교류협회 이사장

민교협·국민일보 DMZ보은메달 제작 참전용사들에게 전달할 것이 계기 작년 JSA서도 착공-애기봉이 세번째

다는 의미를 담기 위해 UN 문자를 체인 형식으로 형상화했다.

-민간 주도의 통일운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다.

▲남경필 도지사=현재 추진 중인 두 번째, 세 번째 평화의 종은 모두 우리 경기도 관할 지역에서 진행되는 것을 매우 좋게 생각한다. 70년 넘는 분단 역사 속에서 서로 이질화돼버린 남북한과 국내외 동포들이 필연적으로 화해 협력의 자리를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될 시대적 상황이다. 그럼에도 오늘날 한반도 상황은 줄기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다. 바로 이때 기독교

계가 중심이 돼 범국민적 평화통일운동의 일환으로 평화의 종 건립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시의적절하고 뜻 깊은 일이다.

-아무래도 순수 민간차원에서 추진해 나가기 어렵지 않을까요?

▲김 전 장관=평화운동은 기한이 있을 수 없다. 우리도 이 사업이 끝나는 시점을 확정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다, 우리 세대를 넘어 다음세대로 이어져가기를 희망하고 있다. 일단 후교의 달인 6월에 맞춰 남북평화의 종 착공식을 가지려 한다. 여건이 가능하면 2023년 한국전쟁 정전

70주년 기념일까지 참전 21개국과 유엔본부 등지에 평화의 종을 건립코자 한다. 한국전쟁 정전 70주년 기념행사로 국내외의 공중과 방송들과 함께 동시 타종 행사를 진행함으로써 국제적인 평화축제로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다. JSA와 애기봉 정상에 평화의 종이 건립돼 역사적인 타종식이 진행된다면 본 사업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이 한층 높아져 새로운 출구가 마련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무엇보다 한국교회의 특별한 관심과 참여를 요청 드리고 싶다. 우리는 이번 사업을 한국교회와 함께 추진한다는 차원에서 '평화문화도시

김포'를 표방한 김포시와 적극 협력하려 한다. 그래서 애기봉에 건립되는 '남북평화의 종' 근거리에 적절한 지역을 선정해 통일수련원을 조성하고, DMZ를 체험해 보지 못한 지방의 교회들을 중심으로 연중 'DMZ평화기도회'와 겸 남북평화의 종 타종행사'를 진행해 한국교회의 통일기도를 범국민운동으로 확산해 갈 계획도 갖고 있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교회나 기관, 단체들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소 목사=민족의 평화통일을 준비하는 일을 어떤 태도를 바라고 해서 안 될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뜻 깊은 일에 참여하는 교회나 기관, 단체 그리고 개인들의 숭고한 헌신은 후손이 본받을 수 있도록 복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이미 건립된 용산 전쟁기념관의 한국평화의 종과 동일하게 평화의 종탑 대리석 기단 가장자리 등에 참여자들의 명판을 조각해 영구적인 기록물로 남겨두고 싶다. 종탑 전면부 중앙에 매달아야 타인연습에 참여자들의 세부적인 기록 및 관련 영상, 사진 등을 수장해 통일이 되는 날 후손들이 개봉해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향후 유엔본부와 참전21개국 등지에 건립될 예정인 평화의 종 건립사업을 비롯한 정례적인 타종 행사에 함께하고 조직위 특별실명위원으로도 위촉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업을 추진하는 한국교회에 대한 바람이나 당부가 있다면 말해 달라.

▲남 도지사=독일 통일의 시작은 라이프치히 성 니콜라이교회에서 소수의 인원이 모여 시작한 원료평화기도회였다. 그들은 기도회를 중심으로 하나 둘 독일 통일의 화두선이 됐다. 한국교회도 수년 전부터 통일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같은 열망이 국민 화합과 사회 통합의 발판이 되고 통일의 기반이 되기 위해 선 국민들과 국제사회가 공감할 수 있는 상징적 이벤트가 필요할 것이다. 한반도 분단의 현상인 JSA와 북녘 땅이 내려다보이는 애기봉에서 한국교회와 중심이 돼 행해지는 범국민적 평화의 종 타종행사는 국민들을 하나 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 한국교회와 오랜 기간 기도로 심어 온 평화통일의 새책이 울트게 할 것이다. 베를린 장벽이 오늘날 세계평화의 상징인 것처럼, 지구촌 유일한 분단국가 대한민국의 분단 상징이자 현상인 JSA와 DMZ가 순수 민간 차원의 평화운동을 통해 세계평화의 현장으로 자리 매김되길 확신한다.

정리=김나래 기자 narae@kmb.co.kr

서울-라이프치히 2017베를린국제평화대회 추진

2017/한/반/도/평/화/통/일/국/민/문/화/제/- 남/북/교/회/가/ 함/께/하/는/ 종/교/개/혁/ 500/주/년/ 특/별/기/획/사/업

서울-라이프치히 2017베를린국제평화대회

INTERNATIONAL PEACE CONFERENCE IN BERLIN 2017
SEOUL-LEIPZIG



다.

를

만

을

그

길

을,

통



주 최
대한민국평화통일국민문화제 조직위원회
라이프치히시정부 1 드레스덴대학교
주 관
사단법인 우리민족교류협회
채독한인총연합회
유럽한인총연합회

기 획 안

통일, 그 길을 만들다.

분단 70년의 역사 속에서 너무도 관이하게 이질화 되어버린 남북한을 비롯한 동북아 일대의 우리 동포들이 이제는 급변해가는 국제정세 속에서 필연적으로 화해협력의 자리를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될 시대적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민족이 안고 있는 지난 역사의 양금이 증오와 망각의 대상이 아니라 극복의 대상이라는 생각으로 모든 동포들의 보편적 합의인 한민족의 전통문화와 민족정신을 통하여 한민족 대화합과 동질성 회복운동으로 한반도 평화통일의 길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힘쓰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 같은 취지에서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그 종교개혁의 현장으로, 우리와 동일한 환경에서 분단된 후, 27년 전 월요평화기도회가 도화선이 되어 평화통일을 이룩한 독일에서, 남북교회와 더불어 <2017베를린국제평화대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통독의 도화선이 된 기도의 현장에서 그들의 경험을 통하여 한반도 평화통일을 생각해 보고, 날로 높아져 가고 있는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열망이 꿈으로 끝나지 않고 현실이 될 수 있는 길 뚫음의 역할을 하고자 하오니,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1. 총괄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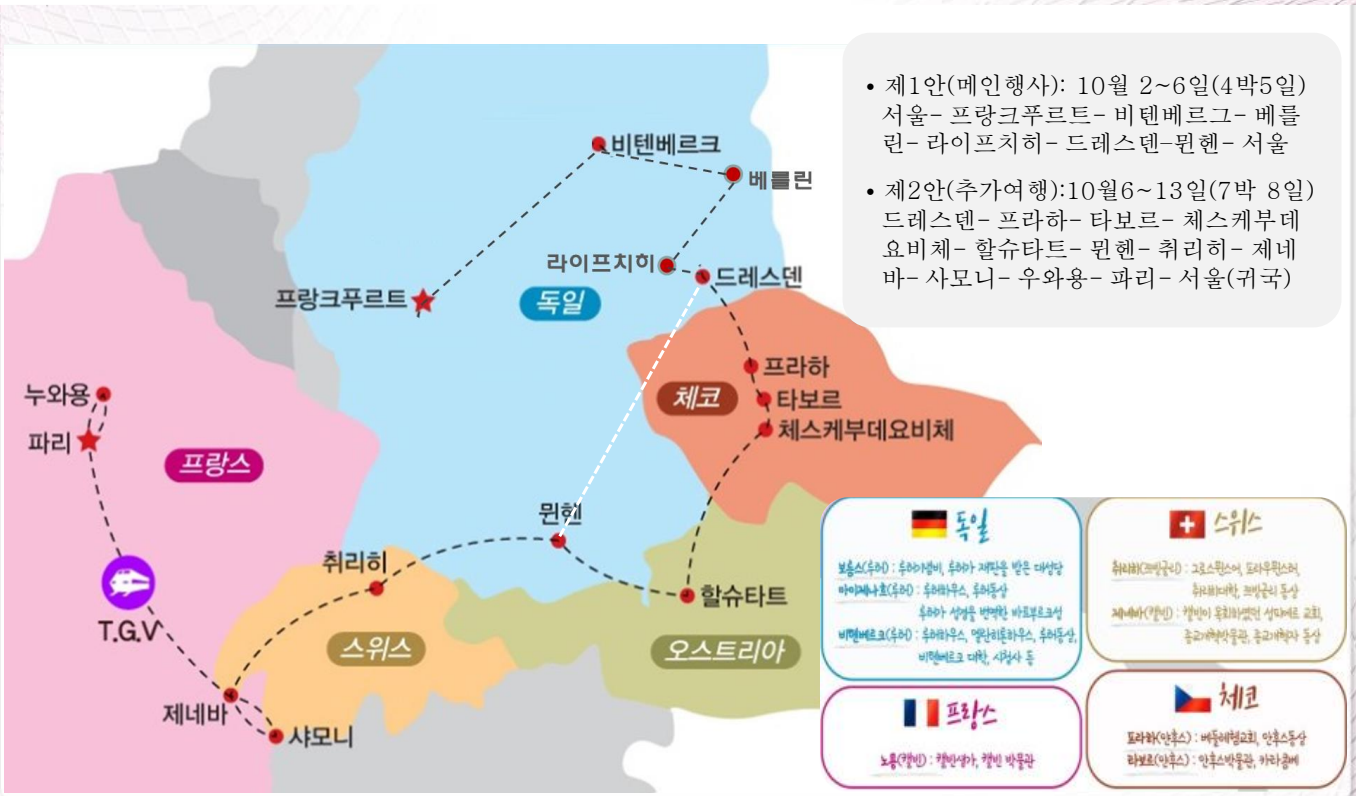
- 변동될 수 있습니다 -

“2017베를린국제평화대회”는 세계유일의 분단 국가인 한반도의 평화통일과 안보와 관련된 국제대회로, 월요평화기도회가 도화선이 되어 앞서 평화통일을 이룩한 독일의 그 기도의 현장에서 한국교회와 더불어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행사 일환으로 진행되는 특별한 행사입니다.

행사명	서울- 라이프치히 2017베를린국제평화대회
주제	통일, 그 길을 만들다
일시	2017년 10월 2(월)~6(금)일
장소	독일 라이프치히, 베를린 등
프로그램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행사 베를린 국제평화대회 및 평화음악회 라이프치히 남북교회 평화기도회 및 남북평화음악회 국제심포지엄
주최	대한민국평화통일국민문화제 조직위원회 라이프치히 시정부 드레스덴대학교
주관	(사)우리민족교류협회 유럽한인총연합회 재독한인총연합회 SBS서울방송(예정) 국민일보(예정)
후원(예정)	민중평화통일자문회의 국민대통합위원회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경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 전국기독교총연합회 유럽한인총연합회 미주한인총연합회



IPC2017



IPC2017

3. 세부 프로그램

-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구분	행사내용	
세부명칭	2017 베를린 국제평화대회	
일시/주관	2017년 10월 3일 PM2:00 / 조직위원회, SBS	
장소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문 광장	
내용	<p>통서냉전과 평화의 상징이요, 독일통일의 현장이라 할 수 있는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문 광장에서 독일통일 27주년 기념일에 맞춰,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국가 대한민국의 국내외 동포들이 함께 모여 한반도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2017 베를린 국제 평화대회>를 개최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국제적인 공감대를 확산하고, 범국민적인 통일한국에 대한 비전을 보여준다.</p>	
	   	



IPC2017

구분	행사내용	
세부명칭	2017 라이프치히 남북교회 평화기도회	
일시/주관	2017년 10월 4일 PM 2:00 / 조직위원회,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조선그리스도교총연합회	
장소	라이프치히 성니콜라이교회	
내용	<p>세계 2차대전 종전이라는 상황에서 민족이 분단되었던 독일은 성니콜라이교회의 월요평화기도회가 도와선이 되어, 27년 전 평화통일을 이룩하였고, 통일한 상황에서 분단되어 이제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국가로 남아 있는 대한민국은 반세기가 넘도록 끝나지 않은 정전 속에서 민족의 평화통일을 염원하고 있다.</p>	
	<p>따라서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남북한 교회가 역사의 현장인 라이프치히 성니콜라이교회에 모여 세계평화와 한반도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기도회를 개최하는 것은 더 없이 뜻 깊고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p> <p>특별히 남북관계가 어려운 현 상황에서 라이프치히 시정부가 중심이 되어 이 같은 일을 추진하는 것은 세계평화를 구현해 가는 역사적인 일로 기록되리라 확신한다.</p>	



한국교회대표 ○○○ 목사 월요평화기도회 지도자 본네베르거 목사 북한교회대표 강영철 목사

IPC2017

6.25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을 위한 DMZ 국민보은메달 추가제작



메달 뒷면에는

“존경과 감사”

6.25전쟁에 참전하신
귀하의 숭고한 희생 위에
오늘의 평화한국이 건설되었기에
귀하의 헌신과 희생을 기리고자
DMZ 철조망과 6.25당시 탄피를 녹여
감사와 존경의 의미를 담아 제작한
보은메달을 국민 모두의 이름으로
귀하게 정중히 드립니다.

라는 문구가
영문으로
새겨져 있음



<DMZ 국민보은메달>은 한국전쟁의 상징인 DMZ 녹슨 철조망과 6.25전쟁 희생자 유해 발굴현장에서 수집된 낡은 탄피 등을 녹여, 대한민국 국민들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순수 민간차원에서 제작되었고, 지난 2013년 7월 27일 미 정부가 오바마 대통령을 모시고, 진행했던 한국전쟁 정전60주년 미 연방정부 기념행사의 공식기념메달로 선정(미 정부발행 인증서 사진 하 좌)됨과 동시에 미 연방정부 우정국이 기념우표(사진 하 우)로 발행한 특별한 메달이다.

한반도 평화통일운동 활성화를 위한 한반도 평화메달 기획제작



한반도평화메달(사진)은, 반세기가 넘도록 정전상태에서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국가로 남아있는 대한민국의 그 분단의 상징인, DMZ 중부전선 녹슨 철조망과 6.25전쟁 때 사용되어졌던 탄피들을 녹여, 순수 민간차원에서 세계평화를 염원하는 지구촌 사람들의 간절한 기원과, 자유수호를 위해 한국전에 참전했던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희생과 전후 복구사업을 지원했던 국가들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제작되었고, 선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내외에서 한반도평화통일에 기여한 인사들께 수여하고 있다.

뒷면에는 “This medal, in memory of the 70th anniversary of the division of Korea, is specially crafted with DMZ rusty wire, a symbol of still-unfinished war along with the ardent hope of Koreans for peace.”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

파독 근로자(광부/간호사)들을 위한 대한민국 국민보은메달 기획제작



“Thank you” 본 메달은 귀하의 숭고한 희생이 6.25전쟁의 폐허에서 오늘의 경제대국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튼튼한 초석이 되었기에, 귀하의 노고와 헌신에 존경과 감사로 보답하고 한반도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뜻에서 본 메달 중심부를 파독 근로자들이 현장에서 사용했던 장비와, 한반도 DMZ 폐철조망을 녹여 제작했음. 라는 문구가 메달 뒷면에 새겨져 있다.



오늘의 경제대국 대한민국이 있기까지는 반세기전 파독 근로자(광부, 간호사)들의 피땀 어린 노고와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는데, 그동안 우리들은 그들의 노고와 희생에 좀더 따뜻하고 감동적인 보답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반세기가 넘는 세월을 보내게 되었다. 그리하여 금번 본 협회에서는 이들에게 대한민국 국민의 이름으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고자 재독한인회가 보내 온 파독 근로자들이 사용했던 근로 장비(사진 중앙) 일부를 녹여 “대한민국 국민보은 메달”을 제작하였다.



상징 뺏지 및 타이즈링 기획제작



타이즈링



상징 뺏지

협회활동 상징 뺏지는, 평화를 상징하는 비둘기가 승리를 의미하는 올리브 잎을 물고 창공을 향해 비상하는 형상으로, 한반도 평화에 대한 비전과 한민족의 무궁한 번영을 표현하고 있으며 우측 상단에는 “PEACE KOREA” 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다.

타이즈링은, 한반도 평화메달 중심부를 인용한 것으로 세계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한국전에 참전했던 16개국을 상징하는 사람들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화합과 협력의 의미로 손에 손을 마주잡고 있는 모습을 표현했고, 하측 가장 자리에는 한반도 분단의 상징인 DMZ철조망으로 제작되었음을 나타내는 “made of barbed wire from DMZ” 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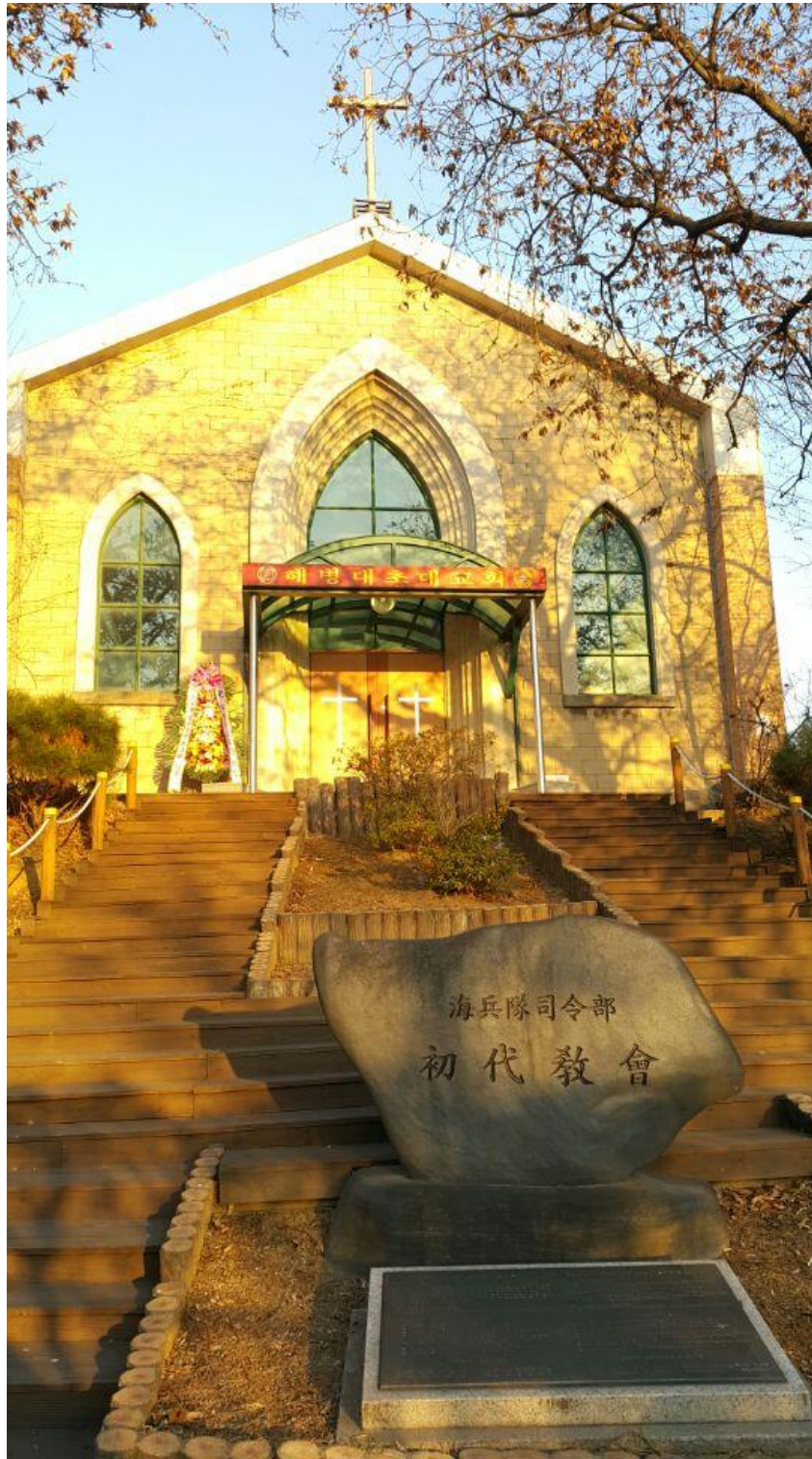


해병대 초대교회 문화재등록 감사예배 보은메달/한반도 평화메달 수여식

군인정신 산실 ‘해병대 초대교회’ 문화재 됐다

개신교 유물 3건 문화재 등록

입력 : 2017-02-15 17:45 / 수정 : 2017-02-15 21:25



서울 해병대사령부 초대교회를 포함한 개신교 유물 3건이 문화재로 등록됐다.

문화재청은 15일 서울 해병대사령부 초대교회,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소장본 ‘찬송가 (UNION HYMNAL)’ 1권,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좌성당 모자이크 제단화 1점 등 총 3건을 문화재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등록문화재 제674호 해병대사령부 초대교회는 1959년 해병대의 정신전력을 강화하기 위해 건립된 교회 건축물이다. 서울 용산구 녹사평대로 용암초등학교 인근에 있다. 해병대사령부는 한국전쟁 당시 임시 구조물을 지어 교회로 사용하다 초대교회를 지었다. 해병대의 역사와 흔적이 배어 있는 장소적·공간적 가치와 더불어 군사력 원동력이 되는 신앙의 근거지로서 군중사적·역사적 가치를 갖고 있다.

등록문화재 제675호로 지정된 찬송가는 1908년 발행된 것으로 악보 없이 가사로만 수록돼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교파 연합 찬송가라는 점에서 역사적인 자료다. 또한 서양 음악인 찬송을 받아들이면서 토착적 전통을 계승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크다.

서울 중구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좌성당 안에 있는 모자이크 제단화는 길이 8m가 넘는 큰 규모로 성당 건축 당시 성당의 주문으로 제작됐다. 작품 완성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훼손되지 않고 원래 모습 그대로 보존돼 있어 가치가 있다. 등록문화재 제676호로 지정됐다.

한편 문화재청은 전북 군산 둔율동성당, 전남 영광 창녕조씨 관해공 가옥, 이화여자대학교 토마스홀, 제주 대정여자고등학교 실습실(구 98육군병원), 천주교 광주대교구청 브레디관 등 5건을 문화재로 등록한다고 예고했다. 이들 5건은 30일간의 등록 예고기간 중 의견을 수렴한 뒤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재로 등록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이화여자대학교 토마스홀은 현존하는 우리나라의 학교 체육시설 중 건축물로는 가장 오래되고 원형의 보존 상태가 양호하며 건축 조형미가 뛰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1963년 체육대학 내에 무용과가 신설된 이후 줄곧 무용관으로 사용돼 왔다.

장지영 기자 jjjang@kmib.co.kr



메달수여식에 앞서 본 협회 송기학 이사장께서 인사말과 더불어 메달제작 과정과 취지를 설명하였다.



이상훈 해병대사령관께 한반도 평화메달을 수여했다.



무적의 해병, 귀신 잡는 해병이라 알려져 있는 해병대 참전용사 노병들께 DMZ국민보은메달을 수여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이름으로 감사와 존경의 뜻을 전했다.



DMZ국민보은메달 및 한반도 평화메달 수상자들과 기념촬영



존경하는 김성호 총재님께.

봄의 기운이 한껏 열리는 우수가 지났지만 겨울이 지나감을 아쉬워 하듯 쌀쌀한 날씨가 지속되는 요즘 가내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전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활동은 물론 민족문화의 계승발전과 동질성 회복을 통해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이는데 기여하고 계신 총재님을 비롯한 우리민족 교류협회 임직원 분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이번 평화메달을 수여하여 주심에 더없는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평화의 경계선이며 우리 역사에 있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DMZ의 녹슨 철조망과 6.25 전쟁 당시 사용된 탄피를 녹여 만들어진 역사적 가치를 지닌 메달이기에 더욱 귀중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평화메달의 소중한 가치와 역사적 의미를 가슴깊이 되새기며 앞으로도 사령관을 비롯한 해병대 장병 모두는 국가와 국민에게 신뢰받는 해병대, 대한민국을 더욱 더 안전하게 지켜나가는 가장 강하고 정직한 해병대로 거듭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영광스러운 평화메달을 수여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총재님의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우리민족 교류협회의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2017년 2월 21일

대한민국 해병대사령관 해병증장 이상훈